



‘호주에서 가장 서늘하고 청정한 타즈마니아’

데블스 코너 소비뇽 블랑

Devil's Corner Sauvignon Blanc

지역	호주 > 타즈마니아		
포도품종	소비뇽 블랑 100%		
알코올	13%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6~10℃		
테이스팅 노트	밝고 싱그러운 연두빛의 색상을 지니며 신선한 풀내음, 아스파라거스, 푸른 식물 계열의 향이 두드러진다. 입 안에서는 씹싸름한 자몽의 느낌이 더해져 상쾌하고 깔끔한 느낌을 선사하는 소비뇽 블랑이다.		



제품설명



호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타즈마니아는 서늘한 기후를 지닌 섬으로 기본적으로 소비뇽 블랑과 피노누아의 각광받는 산지이다. 특히 데블스 코너의 빈야드는 해안가에 근접하게 위치하여 바닷바람의 영향을 받아 신선하고 미네랄리티가 특징인 소비뇽 블랑을 생산하고 있다.

수상내역



2023빈티지 제임스 홀리데이 James Halliday 91점
2020빈티지 디켄터 Decanter 92점

와이너리



132년 역사를 보유한 호주의 Top 브랜드인 브라운 브라더스가 2000년에 새롭게 소개한 호주 타즈마니아 지역의와인이다. 1999년 타즈마니아 북부의 Tamar Valley Kayena 빈야드에서 첫 포도를 수확한 후 2005년 부터는 프리미엄 빈야드인 Hazard 빈야드에서 포도 수확을 시작했다.

타즈마니아는 해양성 기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포도를 천천히 익게 한다. 이러한 기후적인 특징으로 타즈마니아 와인은 산도감을 잃지 않으며 신선하면서도 균형 잡힌 와인을 생산해낸다. 전체 생산량의 5%만 해외로 수출되며 95%는 내수에서 소비될 만큼 각광 받는 와인이다.

데블스코너가 위치한 지역은 협곡이 끝나면서 바다로 이어지는 호주 타즈마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이지만 거센 바람, 험한 파도가몰아치는 지역으로오래 전부터 배가 침몰되어 '악마의 코너' 로 불리웠으며 레이블 디자인에 이 스토리를 담아 호주의 아티스트에 의해 탄생 시켰다. 또한 데블스 코너는 Australia Iri에 의해 데블스 코너는 타즈마니아 No.1 브랜드로 선정, 2022 James Halliday에 의해 4.5 Star를 받는 등 그 퀄리티를 인정 받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